

# 함께! 미디어선교

“CGNTV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0  
autumn  
vol.29  
가을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는 순수복음방송을 위해 상업광고 없이 100% 후원으로만 제작되며,  
복음방송과 온라인 예배를 365일 24시간 전 세계로 방송합니다.

## CGNTV 정기후원 약정서

- 신규** (처음 후원하시는 분)
  - 1만원  2만원  3만원 기타 : \_\_\_\_\_ 원
- 증액** (현재 후원금 + )
  - 5천원  1만원  2만원 기타 : \_\_\_\_\_ 원

### • 신청인 개인정보

성명 : \_\_\_\_\_  남  여 생년월일 : \_\_\_\_\_

휴대폰 : \_\_\_\_\_ 교 회 : \_\_\_\_\_

주 소 : \_\_\_\_\_

### • 납부방법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CGNTV에서 연락드립니다)

예금주명 : \_\_\_\_\_ 예금주생년월일 : \_\_\_\_\_ 주민등록상  
계좌번호 : \_\_\_\_\_ 휴대폰 번호로 된 계좌는 등록 불가

은행명 : \_\_\_\_\_ 이체일 :  5일  25일 (재출금일 - 30일, 다음달 5일)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 자동이체 후원은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하며 CGNTV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과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필수)

예금주 : \_\_\_\_\_ 서명 (필수)

\*모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CGNTV 정기후원 방법

### 1. 약정서 후원신청



### 2. 모바일 후원신청



### 3. 계좌이체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재)온누리선교재단

### 4. 전화 후원신청

02-796-2243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 목차

### 후원자 스토리

#### People

- 2 하나님과의 약속 - 김호숙 후원자
- 4 특별한 결혼기념일 선물 - 박명신 후원자
- 6 꿈을 이루는 방법 - 구정한 후원자

### 코로나19를 이기는 힘

#### Special

- 8 온택트 시대, CGNTV에서 만나다
- 12 다시 시작되는 군부대 예배
- 14 미디어 선교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 선교지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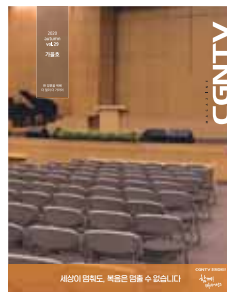
#### Mission

- 16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 - 방글라데시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 부부

### 국내뉴스 / 해외뉴스

#### News

- 18 국내
- 20 해외
- 22 편성표
- 24 에필로그 -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담임목사



#### COVER STORY

CGNTV 후원 특집호.  
 지금은 예배 중, CGNTV가 지구촌  
 예배자들과 지금도 함께합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20년 9월 29일(통권 제 29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추정현, 임예은

**글** 조인애

**사진** 추정현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 하나님과의 약속

찬송가 미용실 30년,  
양포레모리노헤어 김호숙 후원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많은 이들이 미용실을 찾는다. 머리를 손질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용실의 매월 첫 매출은 다른 때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크고 귀한 열매를 CGNTV로 흘려보내는 후원자가 있다. 서울 잠원동에서 양포레모리노헤어를 운영하는 김호숙 후원자를 만났다.

### “내 마음으로는 못해요”

김호숙 후원자는 이번 온누리교회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한다. 사역과 건강, 가정 등 사방에서 옥여쌘을 당하는 듯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장 모든 걸 잡고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고, 매월 첫 매출을 CGNTV에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김호숙 후원자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내 마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40일 새벽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믿음으로 바로 다음 달 첫날 매출부터 CGNTV에 후원을 시작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막지 못한 마음

그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됐다. 그야말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 그러나 반대로 김호숙 후원자는 CGNTV에 후원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전 세계에 CGNTV가 필요한 곳이 더 많아졌으니까 ‘아, 정말 잘했구나. CGN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예배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더라고요.” 다행히 김호숙 후원자의 사업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CGNTV로 드린 첫 열매만큼 매출이 늘어 후원하기 전과 후의 수입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제가 첫 열매 드리고 나서 나머지가 항상 똑같아요. 첫 열매만큼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유희이 와요. 특히 첫날 매출이 클 때 더 그래요. 그래도 몇 번 후원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첫 열매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꼭 필요한 곳을 위해 오늘 많은 손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 달의 첫 열매는 때마다 금액이 다르기에 자동으로 출금이 되도록 할 수가 없다. 매달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한다. 오랫동안 정기후원을 해왔던 김호숙 후원자에게도 매달 다른 금액을 직접 챙기고 후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적당히 비슷한 금액을 정해서 정기후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호숙 후원자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 찬송가 미용실 30년, 멈출 수 없는 전도

김호숙 후원자는 올해로 3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임마누엘 미용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는 미용실이라 주변에서 ‘찬송가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금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가족도, 이웃도, 단골손님도 모두 그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접하고 CGNTV의 시청자, 그리고 후원자가 됐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김호숙 후원자는 CGNTV 후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라고 고백한다. CGNTV를 통해 누리게 된 복음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GNTV에 후원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후원하고 싶는데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다가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셀 수 없는 은혜 중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뿐이라는 김호숙 후원자.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말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죠.”



▲ 김호숙 후원자는 CGNTV가 바로 선교사라며 동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 특별한 결혼기념일 선물

청지기의 마음으로, 박명신 후원자

김포에 사는 박명신 후원자는 올해 결혼기념일을 맞아 CGNTV에 후원을 했다. 아내와 선물을 주고받기보다 미디어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가정의 시작을 기념한 것이다. 타이밍이 잘 맞았을 뿐 대단한 일이 아니라며 손사래치는 그는 오히려 결혼기념일의 후원이 소중한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은혜였다고 한다.

### 주인 행세하지 않기

박명신 후원자는 오래전부터 선교에 마음을 품어왔다. 대학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고 현장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바쁘게 사느라 선교의 비전을 잊었을 때도 있었지만 교회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특히 그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30분씩 일찍 출근해 직장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왔다고 한다. 직장도, 가정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는 박명신 후원자. 그의 기도 제목은 맡기신 그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 그는 단기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와의 활동도 부지런히 해왔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범한 가정으로, 그리고 회사원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 아픔으로 얻은 청지기의 마음

세 자매의 아버지인 박명신 후원자는 온 가족이 매년 아웃리치를 나갈 만큼 선교에 헌신적이다. 그런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었다. 큰 딸이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요동쳤다.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한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해. 네 딸은 네 소유가 아니라 내 딸이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육신의 아버지이기엔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건 맞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어요.”

그 응답 덕분에 그는 더욱 마음 깊이 자신이 청지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큰 딸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이 됐다. 온 가족이 함께 선교의 꿈을 꾸게 됐다. 특히 세 딸은 각자의 이름으로 직접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박명신 후원자가 결혼기념일에 CGNTV를 후원한 것 역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 미디어 선교로 극복하는 코로나19

매년 아웃리치를 다녀온 그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길이 막혔다. 그러다 보니 CGNTV의 사역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오래전 몽골에서 아웃리치를 하면서 CGNTV 안테나 설치하는 모습을 통해 CGNTV의 중요성을 느꼈던 박명신 후원자는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 편지들이 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후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CGNTV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현장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CGNTV를 통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빛진 자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는 박명신 후원자.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자신의 몫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은 후원자로 부르심을 받아 후원을 하지만 언젠가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언젠가 달려가길 원한다는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2016년 오카야마 러브소나타





## 꿈을 이루는 방법

미디어의 힘을 알기에,  
구정한 후원자

CGNTV를 후원하는 3만5천여 명의 후원자들은 모두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잘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구정한 후원자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CGNTV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는 구정한 후원자, 그에게 CGNTV는 꿈을 대신 이뤄주는 소중한 방송국이다.

###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꿈

군 생활을 통해 예수를 만난 구정한 후원자는 전역 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다. 당시 대중가요 뮤직비디오를 하루 종일 방송하는 채널이 유행했는데, 그는 가요 대신 찬양이 하루 종일 방송되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기독교 채널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예배나 말씀 강해가 중심이었다. 지금이야 TV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지만, TV가 전부였던 당시에는 찬양을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하고 지내온 구정한 후원자에게 CGNTV는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꿈이 펼쳐진 곳이었다.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에 이어 모바일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CGNTV는 기독교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해 갖고 있던 그의 아쉬움을 단번에 날려주었다.

“CGNTV의 영상을 보고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꿈을 꾸고 싶어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CGNTV는 구정한 후원자에게 단순한 기독교 방송국을 넘어 함께 꿈을 꾸는 동역자였다.

### 영상의 강력한 영향력

구정한 후원자는 배우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면서 관객과 호흡을 맞추는 특별한 경험이다. 그러나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 무대와 객석을 벗어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상은 빠르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가 배우 생활의 다음 단계로 영상 제작을 시작한 이유다.

이처럼 영상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한다. 잘 짜인 영상 한 편을 위해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의 눈에 CGNTV는 제한된 자원에도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CGNTV가 저한테는 대단하게 느껴져요. 영상 콘텐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CGNTV는 그 어느 곳보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변함없이 만들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구정한 후원자는 CGNTV의 콘텐츠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기도 한다. 영상을 함께 본 직원들이 기독교 방송국의 콘텐츠가 맞냐며 놀리워할 만큼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CGNTV의 콘텐츠는 완성도가 높았다. CGNTV의 콘텐츠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비결이다.



▲ 배우 생활을 통해 영상 매체의 강력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구정한 후원자 (오른쪽)

### 꿈을 가능하게 하는 후원의 힘

영상 콘텐츠는 제작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클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완성도가 높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많은 비용을 상업 광고로 충당하는 타 방송국 또는 제작사와 달리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CGNTV는 역설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의중과 상관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이다.

“광고 없이 후원만으로 운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사역하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은 작게 후원으로 돕지만 언젠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겠다는 구정한 후원자의 약속이 CGNTV의 미디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미디어 선교를 향한 구정한 후원자와 하나님의 꿈이 3만5천여 명의 후원자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



## 온택트(Ontact) 시대, CGNTV에서 만나다

CGNTV가 코로나19 상황에 놓인 크리스천들에게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다.

비대면 시국이 이어지면서 CGNTV의 준비된 온라인 콘텐츠들이 흠어져있는 영혼들을 한데 모아주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여러 가정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 유튜브를 통해 약 2시간 반에 걸친 '라이브 은혜 기도회'도 열렸다. 혼자이지만 함께하는 시간들.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되는(Contact) 온택트 시대,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붓소핍> 등을 통해 누린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 홍도교회 아이들의 '공동체 성경읽기'



▶ 충남 금산의 작은 교회 학생 세 명이 CGNTV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잠언 편>을 통해 매일 성경읽기에 도전했다. 지난 7월, CGNTV가 진행한 'CGNTV 미디어 챌린지'를 통해서였다. 아이들은 매일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함께 시청하며 성경을 읽고 이를 댓글로 인증하는 '공동체 챌린지'에 참여했다. '홍도교회-시청완료'로 시작한 아이들의 댓글은 날이 거듭될수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이들은 챌린지에 성공했다. 아이들의 도전은 홍도교회의 김용호 담임목사의 권면으로 시작됐다. 읍내와도 거리가 있어 전도도 쉽지 않은 마을에서 김 목사는 평소 차세대 사역에 힘써왔다. 특히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도왔다. 근래에는 마가복음 통독에도 성공해 다 같이 자축 파티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외떨어진 작은 마을의 홍도교회도 코로나 상황은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웃 간의 왕래가 단절되고 신앙교육도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그 즈음 김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CGNTV의 미디어 챌린지를 접했고, 말씀 읽는 아이들은 계속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김 목사는 "앞으로 두고 두고 간증할 일이었다"며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 마가복음 통독을 기념해 준비한 파티



▲ 김용호 목사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동체 챌린지 참여 후기

▶ YouTube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검색



### 따로 또 같이 훈훈한 '가정예배'



- gr\*ce K.  
날로날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빠가~~ 더 큰 축복을 기도합니다~
- Joo \*yun Park  
독일에서 예배합니다 아들과 함께하고  
싶는데 학교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함에  
아쉽습니다~ 아버지로 많은 위로와 은  
혜받고갑니다
- 김\*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였고 우리 자녀들  
한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보는 일이  
어려운데 너무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 멋집니다.
- Veronica \*ee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저희 부모도 주  
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됩니다. 자녀는 선물이고 축복  
의 통로입니다.

YouTube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를 통해 여러 가정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가정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아.빠.가>는 지난 1년여간, 가정예배 현장을 라이브로 소개해왔다. 예배를 이끄는 문영재 목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 가정이 지난 8월 한 달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12기 이민영 집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온 가족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요즘,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가정들을 만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집사 가정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 CCM그룹 ‘마르지 않는 샘’의 멤버 유제범 목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문영재 목사의 아들 문예목을 비롯해 비슷한 또래인 각 가정의 아이들도 모두 참여해 찬양과 말씀 묵상, 적용을 위한 실천사항 등을 나누며 뜻깊고 훈훈한 시간들을 보냈다.

<아.빠.가> 12기 녹화를 마치며, 이 집사는 다른 가정들에게도 <아.빠.가> 출연을 권했다. 이 집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아.빠.가>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직접 출연하면 더 풍성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해외에서도 함께 한 '라이브 은혜 기도회'

▶ “교회 온라인 수련회 참석이 어렵게 돼, CCM 들으면서 마음 달래려고 유튜브 들어왔는데, 이렇게 라이브 기도회가 열려 기뻛습니다. 저만의 수련회 하려고요.” CGNTV 유튜브 콘텐츠 <붓소헌섭> '라이브 은혜 기도회'에 달린 댓글이다.

<붓소헌섭>에서는 지난 8월, 조셉 붓소 형제의 인도로 약 2시간 반에 걸친 라이브 기도회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시청자들과는 실시간 댓글로 소통했다. 임재기도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여러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도 받았다. 조셉의 뜨거운 찬양들이 기도 사이사이 은혜의 열기를 더한 가운데, 조셉을 위한 장문의 기도문을 댓글에 올린 시청자도 있었다.

10분 안팎의 영상인 <붓소헌섭>에 비해 긴 시간 진행된 콘텐츠였지만, 9월 초 현재, 9천여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댓글을 통한 국내외 곳곳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다.



- “조셉 붓소, 당신을 한국으로 인도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R) \*cobs)
-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박\*영)
- “땡큐 조셉. 당신의 말과 노래로 이 어두운 때 헤쳐나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Thank you Joseph. Your words and singing has helped me through these dark times. Just wanted to thank you and stay safe brother. God bless.(Ayas \*ema)
-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노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조셉을 축복하시고 그의 노래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Hi Joseph, I'm from Indonesia. Thanks for your prayers and songs. May Lord Jesus bless you. Through you and your songs, the Lord Jesus is glorified(Baine \*oraya)
- “조셉 형제님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축복합니다.” (h\* y)

YouTube **붓소헌섭** 검색



## 다시 시작되는 군부대 예배

CGNTV,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연합  
군부대 언택트 사역 지원

군부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멈춰있는 군선교 현장에 CGNTV와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찾아왔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제작 CGNTV, 이하 서서평) 군부대 상영회를 시작한 이후, 군선교를 위해 다시 한번 뜻을 같이 한 것이다.

CGNTV와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 등 군선교 사역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했다.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병행하며 군선교 중심에 있는 군종목사들과 복음을 향한 뜻을 다졌다.

'군인교회 언택트(Untact)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을 타이틀로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1일 용산 국군중앙교회에서 진행됐다. 전국에서 군종목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선교 현장이 멈춘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예배의 가능성이 열리고 현실적 지원까지 이어져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 군 교회에 온라인 예배 장비를 전달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왼쪽)



▲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CGNTV 함태경 경영본부장

CGNTV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섬긴 가운데, OBS(Open Broadcaster Software)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방송 및 예배 방법 등을 소개했고, 맞춤형 콘텐츠를 통한 군 장병 선교 방법 등도 나왔다. 특히 장비 관리 및 보안 등 군선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역에서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군선교 현장에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한 50여 개의 군 교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등 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했다.

육군군종목사단장 배동훈 목사(육군 대령)는 “온누리교회와 CGNTV 덕분에 군선교에 힘을 얻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교육에 참여한 신요셉 군종목사(육군 대위)도 “군선교 현장이 멈춘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예배의 가능성이 열리고 현실적 지원까지 이어져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함께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바이러스와 수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선교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격려했고,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김준용 장로는 “언택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CGNTV의 미디어 선교는 군선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전했다.

한편 CGNTV는 이번 군부대 선교에 앞서, 지난봄, ‘작은 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전국 250개 작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 각 교회들을 찾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펼쳤다. 9월 현재,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컨설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시국에도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찾아가는 미디어 선교 사역. 복음의 통로를 열어가는 CGNTV의 발로 뛰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CGNTV가 선보이는 기독교 OTT 서비스 '풍당' 홈 화면

## 미디어 선교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며 생각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예배뿐 아니라 양육 상당 부분을 대면으로 진행해왔던 교회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규모가 큰 교회는 영상 기획이나 제작 등 역량을 빠르게 갖춰 대응할 수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상반기 작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CGNTV는 이러한 소규모 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성도 양육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 어려움에 공감하다

각 교회와 목회자마다 성도 양육에 대한 비전과 방식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직접 성도들과 만나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 교회의 개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양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양육만이 가능한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는 교회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양육관과 비슷한 타 교회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그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당분간 양육을 중단하고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개교회가 기다리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잦아드는 것 같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금 거세졌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오랜 비대면 생활로 인해 대면 환경 보다 비대면 환경을 더욱 익숙하게 여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데에 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 말씀 강해, 조직신학, 묵상 등 '풍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앙 콘텐츠

### 마음을 모아 다음을 준비하다

지난 15년간 신앙 콘텐츠를 제작해온 CGNTV는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풍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올가을 베타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CGNTV와 협력 교회, 단체의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한다. 신앙의 성장을 돕는 강의들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서비스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성해 각자의 필요를 채운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양육 방향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 이 커리큘럼은 각 교회나 개인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각 교회에 맞게 콘텐츠 배열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의 자유도를 높였다. 또한 해당 커리큘럼에 참여한 성도들의 학습 상황과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적 관리 시스템도 탑재해 성도 맞춤형 콘텐츠 제공도 가능하다.

###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기독교 OTT 서비스 '풍당'은 교회 간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콘텐츠 제작 기능을 갖춘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기존 영상 플랫폼과 달리 사용자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위해 시청해야 할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특징이다. 서비스 가입 초반 영성 진단지를 제공해 사용자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편향된 신앙관이 아닌 건강한 신앙관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 싶은 콘텐츠'가 아닌 '봐야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풍당' 서비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야 했던 한국교회. 이 어색하고 불편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새로운 서비스의 이름인 '풍당'은 불어로 '흘러넘치다, 빠져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복음에 목말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 이들이 모두 복음에 '풍당' 빠져 널리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한다.



#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

방글라데시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 부부



방글라데시에서 20년간 농장 사역을 했던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 부부. 그들의 사역은 방글라데시 국영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들이 만든 농장은 가난했던 작은 마을을 삶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았던 윤 선교사 부부. 그들에게 CGNTV는 잊히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오지

윤 선교사 부부가 사역하던 지역은 '목파가차' 라는 이름의 시골이다. 수도인 다카에서 차로 네 시간이 걸리는 이 지역은 '진주 목걸이' 라는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가난으로 덮여 희망이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복음에도 적대적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냉대를 마주해야 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윤 선교사 가정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뿜었다.

“그들을 도우려고 내 삶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역 초기에는 어려움만 있었다. 농장이 잘 운영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적대시하던 보수적인 무슬림들이 몰려와 공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현지 동역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오지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다.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던 그들에게 CGNTV가 찾아왔다.

“그 시골에 누가 오겠어요. 정말 외롭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고 CGNTV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었죠.”

##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기

윤 선교사는 파송 받기 전 한국에서 농장을 운영했다. 그러다 일생의 5년 정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농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했다. 농업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는 방글라데시 선교로 이어졌다.

CGNTV로 힘을 얻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섬겼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농장이 성장했고, 마을에 활기가 생겼다. 그러자 방글라데시 경찰이 농장을 보호하는 일이 일어났다. 농장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에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임을 알면서도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공격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했다.

그러나 농업 기술 전수와 달리 복음 전파는 순조롭지 않았다. 이미 생활 풍습이 삶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했다. 아직 이슬람 문화에 젖지 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윤 선교사의 이와 같은 선교관은 현지 교회를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신앙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성장해 교회의 리더가 됐다. 그를 통해 또 다른 리더가 성장하게 됐다. 이제 목파가차는 선교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캠프다.

##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름, 가족

윤 선교사 부부는 방글라데시의 많은 영혼들을 돌봤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컸다. 목파가차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가 없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윤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은 일찍이 부모의 품을 떠나야만 했다.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없었다. 전화 통화를 하려면 차로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다카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특하게 장성했다. 특히 막내 딸은 CGNTV의 후원자가 됐다. 자신의 어린 시절 힘들어하던 부모님의 친구가 된 CGNTV가 고마웠기 때문이란다.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CGNTV는 부모님의 한숨을 털고 얼굴에 미소를 피우게 하는 고마운 친구였다. 윤 선교사 부부의 막내 딸은 후원에 큰 꿈을 품고 있다.

“CGNTV는 제 첫 후원자입니다. 예배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토크 프로그램으로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제 꿈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널리 후원하는 거예요.”

CGNTV로 사랑을 받은 가족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CGNTV와 함께하고 있다.





## CGNTV 국내뉴스



### ‘드림온 플러스’ 보급

CGNTV 전용 인터넷 수신기 ‘드림온 플러스’가 출시 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CGNTV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 시청 방법의 문제점이 보완돼 더 많은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 미주, 일본, 중문 채널을 HD 화질로 볼 수 있다. 설치 후엔 별도의 이용 요금이 없고, ‘드림온 안테나’처럼 선교지 후원도 가능하다. 선교사에게는 무료, 국내 목회자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보급된다. 자세한 설치 방법은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와 문의 전화(02-796-11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플레이어 업그레이드

CGNTV의 VOD를 보다 편리하게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 플레이어에 시청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돼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였다. 화면의 여러 조절 기능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돼 사용의 편의성을 더했고, ‘이어보기’, ‘속도 조절’, ‘키보드 컨트롤’ 기능들이 추가됐다. 화질도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됐다. 모바일 및 개인 PC는 물론 큰 모니터나 TV에 연결했을 때도 보다 선명한 화질을 만나볼 수 있다.



### CGNTV 미디어 챌린지

올여름, 시청자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특별한 도전이 펼쳐졌다. CGNTV 콘텐츠를 활용한 ‘CGNTV 미디어 챌린지’가 지난 7월 ‘공동체 챌린지’, ‘방구석 챌린지’, ‘올데이 챌린지’ 세 부문으로 진행됐다. ‘공동체 챌린지’는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잠언>을 공동체가 매일 시청하고 댓글로 인증하는 이벤트였다. ‘방구석 챌린지’는 유튜브 채널 ‘CGNTV SOON’의 <3분 메시지 PICK&PACK> 시청 후 댓글을 남기는 미션, ‘올데이 챌린지’는 ‘CGNTV LIVE’ 앱을 설치하는 미션이었다. 세 부문에 걸쳐 총 500여 명이 참여해 미디어로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회복을 체험했다. CGNTV는 챌린지에 성공한 공동체 및 개인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 개국 15주년 기념 시청수기 공모전

지난 9월 18일, CGNTV 콘텐츠를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청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총 71편의 수기가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을 수상한 서은주씨를 비롯, 모두 20명의 시청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 서은주씨는 “CGNTV를 통해 얻은 은혜에 더해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CGNTV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CGNTV 시청수기 공모전은 매해 일반 시청자들을 비롯해 해외 선교사들의 사연도 이어지면서 여느 프로그램 못지않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 단편영화 <스물여든>, 아르파국제영화제(ARFA) 경쟁작 선정

2020년 CGNTV에서 제작된 첫 번째 단편영화 <스물여든>이 오는 11월 12~22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아르파국제영화제(ARF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단편영화부문 최종 경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23번째를 맞은 아르파국제영화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디 영화제 중 하나로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에 주목해왔다. <스물여든>은 80세 치매 노인과 돌보미로 봉사하는 스무 살 청년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에게나 있는 청춘의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유영아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았다. 유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물여든>은 오는 12월 CGN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CGNTV 해외뉴스



### 미주 CGNTV\_ 차세대를 위한 현지 프로그램 확대

지난 9월 6일 미주 CGNTV에서 '얼바인온누리 교회 어린이 주일예배'를 새롭게 선보였다.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되는 '얼바인온누리 교회 어린이 주일예배'는 현지 교회 첫 어린이 주일예배 콘텐츠다. 현재 미주에서만 방송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 <산나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현지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미주 CGNTV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CGNTV의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동 지역에 방송하고 있다.

### 일본 CGNTV\_ 'G-POP 콘테스트', 유튜브 라이브 호응

일본 CGNTV가 제작한 가스펠 아티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G-POP 콘테스트'가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차세대 찬양 사역자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로, 일본 CGNTV 스튜디오 설립 이후 첫 유튜브 방송이다. 약 50여 팀이 참가해 19팀이 본선 경합을 벌였고, 미야기 현의 마츠다 유메가 그랑프리 를 차지했다. 수상자 인터뷰는 스튜디오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일본 교계와 크리스천 미디어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프로그램은 약 400여 명이 동시 시청했다. 참가자 영상은 G-POP 콘테스트(G-POP콘테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 대만 CGNTV\_ 가정회복 프로젝트 <가정 연락부(家庭联络博)> 제작

대만 CGNTV는 중화권 선교 3대 콘텐츠 비전인 '말씀, 가정, 차세대'에 발맞춰, 오는 10월 가정 간증 프로그램 <가정 연락부>를 방송한다. 대만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협력, 제작하는 <가정 연락부>는 아버지의 회복이 가정에 미치는 영적 영향력을 알리며, 중화권 가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대만 국민배우 리텐주가 메인 MC를 맡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그는 지난 2016년 대만 금종장 남우주연상 수상 당시 주기도문으로 소감을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 인도네시아 CGNTV\_ 주일학교 돕기 더빙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CGNTV는 <예수님이 좋아요>, <성경 공작실> 등 CGNTV 대표 어린이 콘텐츠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 제작해 방송한다.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주일학교를 돕기 위한 것. 자막으로 이해시키기 어려운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토요일 MNC Vision LIFE 채널에서 방송되며 인도네시아 CGNTV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이 밖에도 다양한 더빙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 및 신학교를 도울 예정이다.



### 태국 CGNTV\_ 새신자 맞춤형 콘텐츠 <Review Bible> 방송

태국 CGNTV는 신규 모바일 콘텐츠 <Review Bible>를 오는 10월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 새신자를 위한 5분 남짓한 콘텐츠로, "아멘,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등 복음을 처음 접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12가지 주제를 말씀에 따라 쉽고 재밌게 소개한다. 코로나 시대, 모바일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요즘, 20~30대 태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 05:4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어린이예배 11:10 생명의 삶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11: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2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10:20 [말씀] 추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동래중앙교회- 11:2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2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나침반 바ই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11: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7: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나침반 바ই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10:2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11: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2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나침반 플러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9:40 CGN 비전특강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1: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이재훈 목사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06:4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1: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3:00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1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6: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7: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0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3: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6:00 예수님이 좋아요 16:3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상튼중앙장로교회) 17:1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4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00 [말씀]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13:4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4:40 [말씀] 박신용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00 어린이예배 16:3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10 R.T. 켄달의 말씀과 성령 17: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4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0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6:3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17:10 데이비드 플랫폼의 요한일서 17: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0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40 [말씀] 양경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16:3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17:10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메시지 17:4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2:00 뷰릿지 12: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0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13:4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4:4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5:20 [세미나] 심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6:3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17:10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메시지	12: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0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13:30 예수님이 좋아요 13:40 어린이예배 14: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5: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16: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7:20 수영로교회 금요철야예배
18:00 지구촌교회 주일예배 19: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20:1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0: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분방) 23: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18:1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18: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40 [세미나] 기어코 성공해 내는 자녀들의 비밀 20:20 [말씀] 추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안양제일교회 주일예배 23: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8:2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19:40 [세미나] 2019 킵덤 컨퍼런스 20:2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상당교회 주일예배 23:10 [세미나]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 00: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18:2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9: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9:40 [세미나] 2020 예수동행 학술컨퍼런스 20:2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23:1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8:20 [말씀] 김형의 목사(벧살롬교회) 19:0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9:40 [세미나] 이동원 목사의 열두 사도 이야기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23:1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8:2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9:0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9:40 [세미나] 2019 추양재단 목회강좌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3:1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8: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9:4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0: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4:00 [컨퍼런스] 디모데후서 - 충성을 다하는 믿음

#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애틀 형제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문 앞에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 예배, 현장 예배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기존 주일 예배를 대체하게 되는 삶을 살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선교지에서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CGNTV를 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영상 예배가 그들에게는 일상이고 매 주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만 견디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이 팬데믹 상황은 몇 달이 지나도록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끝나려나, 여름이 오면 나아질까 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재확산 될 것이라는 예상에 지구촌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닫힌 교회 문만 바라보며 그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형제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 관념을 바꿨습니다. 닫힌 문만을 바라보지 않고 열린 다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리적 모임이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자 우리의 눈을 가상공간으로 돌렸고, 그 공간에서 다가갈 수 있는 수억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영상 예배, 영상 수업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함께 대화하며 게임도 합니다. 그들에게 가상공간에서의 예배와 성경공부, 순모임 등은 어른 세대의 대면 예배만큼이나 익숙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시도하였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타주와 캐나다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참여하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현지의 어린이들까지도 참여하며 온 열방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았습니다.

영상, 와이파이, 온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선교, 전도, 예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하늘 길이 닫히고, 더 이상 국가 간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이용해 각 나라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내다보고 방송 선교로 각 나라 오지 끝까지 들어간 CGNTV의 사역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동안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많은 국가들의 안방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미리 예견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CGNTV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보다 더 큰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선교적 삶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담임목사



## 후원안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순수복음콘텐츠 CGNTV와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해주세요.

###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5-0000 (한 통화 7천원)

####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 해외지사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강종도, 고미애, 고현준, 곽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영빈, 김관근, 김관식, 김근철, 김동철,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미, 김영환, 김영희, 김용성, 김원구,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준홍,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경화,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장순, 박재두, 박지수, 박진두,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배병태, 백종신,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안해욱,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도훈, 오 명, 오범규, 오이식, 우시정, 유병진,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백음, 이서정, 이석일, 이영태, 이영희, 이용만, 이용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경, 이희연, 임동욱, 임상범, 임성택,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상기, 정윤희,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주영재, 지성한, 진삼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훈학,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운

##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언제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드림온 안테나 / 플러스

- ▶ 드림온 안테나(위성TV) : 30만원
  - ▶ DREAMON (인터넷TV) : 15만원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후원을 통해 CGNTV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케이블TV

- ▶ LG HelloVision ch.288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159번 (프리미엄형 상품)
- ▶ SK Btv ch.550번 (프리미엄형 상품)

#### IPTV

- ▶ gilleh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ch.271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모바일 앱

1. CGNTV LIVE
  - 이용방법 :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팟캐스트
  - 이용방법 :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 팟빵)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CGNTV 웹사이트

CGNTV 웹사이트에서는 고화질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CGNTV 웹사이트 : www.cgntv.net  
- 모바일 웹 : m.cgntv.net

#### CGNTV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CGNTV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CGNTV', 'CGNTV SOON', 'KNOCK노크', '붓소환섭' 검색
- facebook 'CGNTV', 'KNOCK노크' 검색